

협회소식

「건강 식생활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본회는 7월13일 오후 2시부터 6시반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건강식생활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

동 심포지엄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체위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최근 들어 「이상구신드림」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어 자칫 오도되는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례가 될까 우려되어 식육과 육가공제품의 실태를 알리고 바람직한 건강생활을 제시코자, 각계의 저명인사를 초빙, 심포지엄을 갖게 된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 및 발표자, 좌장은 다음과 같다.

△ 제1주제-육류소비와 건강: 韓錫絃 박사(건국대 축산대 교수)

△ 제2주제-콜레스테롤과 건강: 李禎均 박사(한양대 의대 교수)

△ 제3주제-빈혈과 동물성 단백질: 蔡範錫 박사(서울대 의대 교수)

△ 제4주제-육제품의 안전성: 李茂夏 박사(서울대 농대교수)

● 주제별 좌장

△ 제1,2주제-宋계원 박사(서울대 교수), 朴형기 박사(전북대 교수)

△ 제3,4주제-蔡영석 박사(강원대 교수), 梁 용 박사(연세대 교수)

한편 본회는 심포지엄에 따른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지를 대량 발간하여 국민 누구나가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는데 도움 받을 분들은 다음과 같다.

△ 육제품의 저장과 유통상의 안전성: 宋인상 박사(식품연구소 수석연구원),

△ 유통되는 육류의 식별과 쇼팽: 李영진박사(축산기업조합중앙회 전무)

△ 육류란?, 육가공이란?(혼연, 방부제, 첨가제): 成삼경 박사(영남대 교수)

△ 육가공제품의 조리 및 이용 방법(맛 있게 먹는 방법): 韓정혜 원장(요리학원)

△ 바람직한 육식생활: 金천제 박사(건국대 교수)

△ 발표자 포함

심포지엄 추진, 편집 위원회를 구성

본회는 심포지엄 추진 계획에 따라 회원사 및 학계, 단체 증진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 및 교재겸용 회지와 홍보지의 편집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4월27일 구성, 金東坤 부회장의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주제 및 강사 선정, 홍보용 책자 발간 계획 및 예산 심의를 했다.

또한 5월2일 편집회의에 이어 5월19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1차 회의내용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했으며, 27일에는 초빙강사로 내정된 발표자들과 회합, 상호 발표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했다.

심포지엄 추진 및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다. (▲는 편집위원 겸임)

▲ 姜호문(진주협 상무) ▲ 金경우(선진축산 전무) ▲ 金안규(평균회 이사) ▲ 金용택(한국식품기획실장) ▲ 金인상(롯데햄우유 이사) ▲ 金정현(한국냉장 부장) ▲ 金천제(건국대 축산대 교수) ▲ 盧영한(양돈협회 전무) ▲ 白

웅기(코델리 대표) △梁경석(삼원농역 대표) ▲李무하(서울대 농대 교수) ▲李보명(남부햄 상무) △李석두(동남육가공 대표) △鄭용국(대림식품 부장) ▲河대중(제일제당 기획실장) △韓석현(건국대 축산대 교수) △金동곤(협회 부회장) ▲韓문수(협회 부장)

'89정기총회 개최

본 회의 89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월21일 삼정호텔에서 가져졌다. 올해 들어 첫 이사회에 이어 가져진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8천1백26만6백80원의 결산액을 심의 처리하는 한편 89년도 9천7백14만8천원의 수지에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올해의 주요사업으로 육가공제품의 수요 개발과 기술향상 및 품질개선 세미나, 육가공제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공동 홍보사업, 영업시설 및 경영지도의 자율지도원 운영 등을 주요사업으로 채택했다.

또 총회에서는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 6항을 신설, 자율지도 사업을 명시했으며, 제24조(자율지도위원의 자격 및 임면)과 제25조(자율지도원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16조(임원의 정수) 2항 부회장 3인을 4인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를 개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이 지난 86년 8월20일 창립총회시 선출, 잔임 기간의 임기가 만료되어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전 임원을 개선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명	구분	회사별
강진우	유임	롯데햄·우유 대표
박재복	유임	진주햄 대표
양경석	유임	삼원농역 대표
김정순	신임	제일제당 대표부사장
김동곤	유임	(상근)
안교덕	신임	한국냉장 대표
권태은	유임	남부햄 대표
오치남	유임	대림식품 대표
안동관	유임	서신유통 대표
최영숙	신임	진미농역 대표
최문규	신임	한국식품 대표회장
황봉섭	신임	팬컨 대표
이석두	유임	동남육가공 대표

※ 한명은 4월1일자로 신건호사장 취임.

육가공업체 크게 증가

89년 3월말 현재 전국 육가공업체 수가 87년 3월 대비 31.6%가 증가한 2백개 업체로 나타났다.

본 회가 전국 각 시·도에 문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87년 3월 1백52개였던 육가공업체는 금년 동기 대비 46개 업체가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2년 사이 20개 업체나 증가했으며, 경기도는 15개 소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각 시·도별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도별	'87.3	'89.3	증감
서울	51	71	20
부산	11	16	5
대구	7	10	3
인천	4	5	1
광주	1	4	3
경기	26	41	15
강원	8	8	0
충북	4	8	4
충남	6	1	-5
전북	4	6	2
전남	11	4	-7
경북	8	6	-2
경남	10	16	6
제주	1	2	1
계	152	198	46

(한남 부산, 목포 법인체 미포함)

생돈 장기 공급 계약 확대 추진, 큰 호응

본 회의 육가공업체의 원활한 생돈수급 및 가격안정과 생산능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생돈수매가격 약관에 따른 업체와 생산농가간의 계약을 추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87년 12월15일 롯데햄·우유에서 전북 진안군 축협조합(조합장·유자옥)과 90년 5월15일까지를 기한으로 월1천 두수를 수매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 회원사 중 3개 회원사와 6개 생산농가와 계약을 체결, 앞으로도 수매 계약할 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생돈 가격의 등락폭이 심해 생산농가에서는 시기에 따른 변동가격으로 생산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육가공업체에도 가격 및 수급에 안정을 기하기 어려워 많은 차질을 빚어 왔다.

약관의 주요 항목은 계통출하 장기공급계약을 원칙으로 생체가격을 kg당 1천2백22원(지육 1천8백51원/kg)으로 하고 계약후 사료가 3%이상 인상시 3%인상분을 반영토록 하며 계약가격에 15%이상의 생돈가에 대하여 50%씩 각각 부담(연동제)키로 하되 서울 3개도매시장의 평균가격에 준하기로 했다(지육·66%기준).

또 공급하는 생돈규격은 생후 30일 이내 거세한 거세돈과 암컷 30% 이상을 필히 납품할 것과 등지방두께 3.0cm이하(3개 부위 측정), 모색은 백색돈을 원칙으로 하고 출하돈은 출하 20일전부터

항생, 항균물질의 경구투약, 주사를 금지토록 했다.

관련업체의 생돈장기공급계약 체결 현황은 별표와 같다.

가공(대표 鄭址燮), 경기 화성 한일식품(대표 車相協), 서울 양평동 한주식품(대표 尹敬淑)이 신규 가입, 회원사는 30개사로 늘어났다.

생돈장기공급계약 체결내역

회 사 명	공 급 자	계약일	월 두수	기간
(주)롯데햄·우유 (대표:姜晋佑)	전북진안군 축협조합	87.12.15	1,000	87.12.15~90.5.15
	전북정읍이평농협조합	89.3.1	500	89.3.1~90.2.28
제일제당(주) (대표:安是煥)	충북제원군송학농협조합	89.3.15	89.5~7월(320)	89.5.1~91.10.30
			89.8~9월(500)	
			89.10~91.10.30(750)	
(주)동남육가공 (대표:李錫斗)	충남당진대호지,정미,면천농협조합	88.11.25	1,200	89.3.1~91.2.28

식품공전 일부 개정

본회는 보사부가 지난해 6월15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전면 개정 고시함에 따라 회원사의 의견을 받아 자체 심의한 후 일부 개정 고시안을 제출한 바, 협회안으로 개정 고시되었다. 이 고시는 1월10일부터 시행되었다. 다음은 식육가공품중 개정 고시내용이다.

실무부서장 회의

銀), 서울 독산동 동성육가공(대표 李在鎔), 광주 삼국육가공(대표 金貴童), 서울 성수동 선일육

본회는 지난 3월9일 육가공품 수입 예시에 대한 대 정부 건의에 따른 회신 및 '89~'91 수입개방 품목에 대한 업계 공동 현안에 대한 실무부서장 회의를 4월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 이상구건 강론 조치의 건 △ 수입 쇠고기 임가공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안 △ E.P.B 및 관련부처 정기 보고 △ 올림픽 성공 효과 보고 △ 불량식품 신고함 설치 △ 식품박람회 참관 △ 세미나 개최 △ 회지 발행 등에 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회원사 계속 늘어

본 협회 회원사로 대구시 소재 광명식품(대표 徐弼蓮)을 비롯 인천 광진종합식품(대표 金光

식육제품-식육가공품

현 행			개 정		
5) 주원료 성분배합기준 (1) 용어의 정의 (추 가)			〈좌 동〉		
			㉞ 피크닉 햄-돈육의 어깨등심 부위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㉟ 배리 햄-돈육의 복부육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9) 보존 및 유통기준 (4) 권장유통기한			〈좌 동〉		
제 품 류	보존온도	유통기한	제 품 류	보존온도	유통기한
③소시지, 혼합 소시지			좌 동	좌 동	
㉞비가열제품					
㉞냉 동	-12 ~ -18	45일			90일
㉞멸균제품	실 온	60일			90일
⑦분 쇠 육			좌 동	좌 동	
㉞비가열제품	-12 ~ 18	30일			90일
⑩통조림, 병 조림	실 온	18개월			3년

포장육업체 활성화 방안 협의회 개최

본 회가 주관한 전국 포장육업체 활성화 방안 협의회가 지난 5월 17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40여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가져졌다.

이날 회의는 포장육의 품질향상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업체간 판매경쟁으로 인한 가격 덤핑행위 등을 지양,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공동 체제를 모색하는 자성론에 따른 것이다.

金東坤 상근부회장이 주재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를 위해 업계 스스로 자율지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자율지도위는 각 도별 대표자를 선

정하여 구성하고, 자체 규약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협회에 일임키로 했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 업체 대표들은 수입쇠고기 임가공사업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는데 특히 임가공료가 부가세 포함 kg당 5백9원으로 수지가 맞추기가 힘들다고 지적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책정, 유관기관에 요구해 줄 것을 협회에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또 스트레이, 랩, 박스 등 포장재의 공동 구매사업 △대 기업과 포장육업체와의 정육 등 납품 연계사업 실시 △해외 육가공업계 시찰 △심포지움 개최에 따른 협조 방안 등 폭넓은 의견이 교환되었다.

가 고혈압, 당뇨병 등 비만증 환자들이며, 그들의 치료에는 채식이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추측되나 우리 국민들은 비만증 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 식생활에 그대로 도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생산자단체는 3월 3일 축산회관에서 2차 모임을 갖고 KBS측에 강력 항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협의했으며, 14일 KBS를 방문, 3월 4일 방영한 심야토론 프로와 유사한 프로를 사전 예고후 골든 타임인 밤 8시~9시에 시리즈로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국방송공사(KBS)는 지난 3월 24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이상구박사...」 프로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다.

한국방송공사는 회신에서, 「단순한 채식 건강법에 대한 질타와 우려를 참고하여 프로를 제작하겠다」고 밝히고 차후 의학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건의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축협중앙회 김춘배 부회장, 한국유가공협회 류재영 부회장, 양돈협회 노영한 전무이사, 대한양계협회 남두희 실장 등은 지난 3월 16일 KBS를 방문, 이상구 프로의 대응 프로 방송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KBS는 이상구 프로로 인해 양축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농민, 지식인, 가정주부들이 즐겨 시청하는 황금시간대에 수회에 걸쳐 대응프로를 방영하기로 약속했다.



李相玖채식주의 방송사에 강력 항의

본 협회를 비롯 10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축산단체협의회는 2월 27일 한국방송공사 사장 앞으로 「이상구 박사의 새로운 출발」 방영 내용에 대한 건의문을 마련, △프로가 방영될 시 이는 그의 개인 의견이며, 이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사전 통보하

여 소비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줄 것 △적어도 4회 이상 이 프로가 방영된 동일 시간대에 영양학자들의 좌담회를 통해 그의 발언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그는 우리나라와는 식생활 패턴이 전혀 다른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워마의 모든 것」이라는 프로에 보면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거의